



문명과 인간본능과의 함수 산골 火神祭 소재로 한 中篇

— 소설가 柳在用씨

지금 집필중

이미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조연현문학상 등 굵직한
상을 받았던 소설가

柳在用(51)가 올 제18회 동인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사람들은 십년 넘어 실향문학의 밑뿌리를 파헤쳐오던 그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 생각했다. 이번 수상작 「어제 울린 총소리」는 외아들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뒤 홀로 남은 한 노인을 주인공으로, 40여년 전의 역사적 분단과 현실세계의 가족적 분단을 오버랩시킨 작품.

유재용씨는 12살 어린 나이에 월남한 실향민이다. 젊은 날의 가난과 병마를 문학수업으로 극복하여 뒤늦게 문단에 데뷔, 초기엔 문명비판적 경향을 띤 소설들을 내보이다 70년대 후반부터 체험적인 실향민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가진 모든 사람의 아픔을 소설로 형상화해온 유재용씨는 요즘 중편을 집필 중이다.

“문화나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정열이나 힘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이만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야생적이고 원초적인 힘들을 죽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어느 산골을 배경으로, 이곳에 신앙처럼 전해내려오는 민속놀이를 소재로 삼고 있다. 이 마을에는 일손이 한가할 무렵이면 빈터에 집을 짓고 마을 사람들 중에서 한사람을 제비뽑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집에 불을 지르게 하고 그를 처벌하는 풍습이 있다. 이 행사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과정을 마치 축제일처럼 즐기고 신명나게 노는 기간으로 삼고 있었다.

“아주 옛날, 동네가 점차 커지면서 방화사건이 한두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방화행위를 마을의 성장과 함께 계속된 억압된 본능으로 보고, 빈터에 집을 짓고 불을 지르는 과정을 통해 이 억압된 충동을 발산해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가운데 누구나의 마음속이나 숨겨져 있는 본능을 잠재울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놀이를 만든 다음부터 마을에서는 방화사건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민속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이 풍속을 조사하려고 마을에 나타난다. 교수는 이 놀이가 학술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으므로 전국적인 민속놀이로 출품해야 한다고 마을 어른들을 설득해, 마침내 운동장용 놀이로 규모를 축소시킨 행사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축제의 의미가 상실된 채 한마당 공연물로 전락한 놀이는 이미 그 효능을 상실해 버려, 마을에는 다시 방화사건이 나타나게 된다.

“火神祭랄까 하는 이 놀이를 통해 문명과 인간의 본능과의 기묘한 함수관계를 되새겨 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작품을 쓸 때 미리 제목을 정해놓기도 하고, 작품을 마무리 짓고도 제목을 정하지 못해 고심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유재용씨는 곧 마무리될 이 작품의 후속타로 북쪽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의 뿌리뽑힌 삶, 고통스런 실향민의 모습을 그려낼 장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 박경순 기자



생물학用語 통일의 획기적 성과 1만 3천 항목 수록한 「生物學事典」

— 敎文社서 11월중 출간

지금 제작중

사전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화학약물사전」,
「축산학사전」에서
「성경대사전」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사전들이 속속 발간되어 바야흐로 사전의 전문화시대를 맞았다.

이미 「물리학용어집」을 내기도 한 敎文社(대표 柳濟東)에서는 지금 「생물학사전」의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한국생물과학협회가 편찬기획을 하고, 교문사에서 제작하는 이 사전은 생물학 분야를 총망라, 처음으로 우리말 용어를 통일시켰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생물학의 모든 분야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용어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와 전문가들에게조차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졌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말 용어의 통일과, 새로운 용어 해설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이 생명과학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 「생물학사전」의 발간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편찬을 주관한 金昌煥교수(고대 생물학과)는 말한다.

이 사전의 편찬에는 한국생물과학협회 산하의 6개 학회, 즉 한국동물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육수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등이 참여했다. 집필은 李仁圭(서울대 식물학과)·崔榮吉(한대 미생물학과)교수 등 각 학회에서 2명씩 선발된 12명의 교수가 맡았다. 이들이 집필한 원고는 분야별로 나누어 姜萬植(서울대

동물학과)·李碩雨(서울대 생물학과)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쳤고 마지막으로 다시 몇명의 전문위원이 총괄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완벽을 기했다.

“생물학이 워낙 광범위한 분야인데다가 다른 분야에서 먼저 용어를 제정한 것도 많아 특히 용어통일에 힘이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외국의 번역서에만 의존해 왔던 터라 자료수집에도 어려움이 많았지요.”

1만3천여 항목에 이르는 많은 용어를 짧은 시일 안에 다루느라 아직은 미비한 점도 많다는 金교수는, 그러나 이 기회에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까지 통일을 보게 되어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이 사전의 제작을 맡은 교문사의 黃圭顯상무(57)는 워낙 사전편찬이 공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긴 하지만 특히 이 사전은 제작기간이 많이 걸렸다고 한다.

“초교나 재교 등 교정이 끝날 때마다 다시 학회로 원고를 보내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학회에선 다시 자료를 찾아 보충하고 토의하고, 다시 우리의 손으로 들어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요.

그러다보니 주변에선 ‘언제 나오느냐, 왜 안나오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읍니다.”

58년에 창립, 근 30년간을 주로 과학이나 기술계통의 전문서적을 발간해온 교문사는 이 사전 역시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장성도 의외하고 제작에 참여했다고 한다.

82년에 착수, 11월 중에 간행될 이 사전은 용어혼란이 많았던 생물학 분야에서 꼭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 틀림없다.

— 최윤희 기자